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6

회차 , 구원, 하나님의 사랑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구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의 가르침인 요한 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요한 복음에 나오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많은 주제를 생각해 본 후,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구원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사람들에게 대한 선택, 영생. 요한이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군데,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가르침.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을 보는 여섯 가지 다른 관점, 그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16~2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심판이니, 빛이 세상에 왔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여기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그분의 외아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그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DA 카슨은 그의 책, *The Difficult Doctrine of the Love of God*에서 그것이 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세상이라기보다는 나쁜 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세상은 신의 원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단어는 모호합니다. 때로는 행성, 신이 창조한 지구를 의미하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죄 많은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자랑스러운 삶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원치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서론의 1장 5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단어가 이해되었다로 번역될 수 있고 극복되었다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된 번역에서는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중 의미, 이중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신을 대적하고, 그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 *mastered*를 제안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이 그것을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철자 단어를 마스터하는 것처럼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뛰어난 레슬러가 매트 위에서 상대를 제압했듯이요. 만약 내가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아마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ESV가 한 것처럼 할 겁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문맥상, 창조물 속의 하나님의 계시는 타락 후의 죄악스러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말씀은 영원한 삶의 위치입니다. 말씀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삶, 세상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삶, 성육신 이전의 아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은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말씀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일반적인 계시가 비추어진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빛은 바로 빛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노믹 현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토록 악한 세상을 대적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의 베푸심은 그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오,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이며, 그것은 감상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요, 감상주의는 아니지만 감정이 개입됩니다. 오, 물론 신에 대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신을 지칭하는데 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신은 우리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변덕스럽고 때로는 최악적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파트너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경건한 인간적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하지 못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는 신의 감정을 테오스 에서 온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 의미는, 우리는 신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신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추락 이후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다른 능력과 역량처럼 왜곡되었지만, 그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행동, 말, 베푸는 것, 그리고 감정을 포함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그 베푸는 것의 결과이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중요한 자, 혹은 구약성경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요한복음은 주권과 구원의 모티프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신의 선택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시며,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에서 예수께서 선거의 창시자이심을 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영이 저자인 적은 없습니다. 대개는 아버지이거나, 단순히 신성한 수동성입니다.

그들은 선택되었고, 그것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선거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신성한 주권. 셋째,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듯이,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의 세 번째 선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선행 또는 사전 정체성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주권에 대한 강한 강조. 예수께서 양들을 지키신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것은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단정적인 진술: 유명한 중급 그리스어 문법 작가이자 중급 및 참조 문법 작가인 댄 윌러스는 문맥에서 용법에 따라 문법을 연구하고 수행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약성서 언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책임, 책임성, 그리고 유죄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여하시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는 개인의 신자의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특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자유롭고 보편적인 제의를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교훈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신성한 회의를 깊이 파고들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냈기 때문에 압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온전한 확신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분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부르거나 소환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의 말을 빌리자면 ,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자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함께 일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았듯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언어는 성경이 지옥에 대해 말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는 영원한 죽음, 파괴, 멸망입니다.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썄요, 이것들은 진짜 처벌, 죽음, 파괴,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그것이 잃어버린 자들의 존재의 종단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의 계획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17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요한 복음의 놀랍고도 놀라운 주제이다. 영생은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이미, 믿는 자의 현재 소유이다.

사실, 코를 세어보면 요한복음의 영생은 지금입니다. 17:3이 그것을 정의합니다. 그는 그것을 관계적 용어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말씀하셨으니,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새 땅에서 부활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즐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당연히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일은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이상한 일은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날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판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미리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3:1은 이 주제를 계속합니다.

징조의 책은 12절 끝에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두 번 말씀하셨고, 성경이 두 번 말씀하셨고, 요한이 그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1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징조의 책에서 청중은 세상, 유대인입니다.

영광의 책 또는 승영의 책 13장부터 끝까지,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세상으로 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그의 준비의 일부는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중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는 표적을 행하고 세상 앞에서 설교를 하고 불신과 믿음의 반응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는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에게 비밀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자신을 위해, 그의 제자들을 위해, 11명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1, 유월절 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 시간은 시간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실존적 복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마치 예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다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실존적이라는 뜻이 맞죠? 틀렸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절기들, 2장의 유월절, 6장의 유월절, 헌신절, 7장의 초막절, 10장의 헌신절, 이런 것들, 그리고 작별 담화에 나오는 유월절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따라 움직입니다. 시간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 그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13:1, 예수께서는 그의 시간이 왔고 그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간과 시간은 동의어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16.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 학자들은 여기서 이중적 의미를 감지합니다.

분명 그것은 이어지는 구절의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인의 역할을 특별히 수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창피할 것입니다. 그것은 창피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구민들이 목사님과 그의 아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식사 중 어느 시점에서 목사님이 "욕실을 청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부가? 어떤 교구민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들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찮은 일은 목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목사는 당신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목사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랍비가 학생들의 발을 씻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요점이 전달됩니다. 사실, 학생들은 랍비를 위해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먼저 왔다"고 말할 때, 그는 나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언어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보다 훨씬 못해서, 가장 하인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집안의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와 관계를 맺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요한 세례자 종파가 발전한 것은 요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 세상에. 그건 분명히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정이나 자기 홍보가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3:1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극단적인 예에서 그것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자와 학자들은 그것이 또한 그의 삶의 끝, 친구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그들의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웃게 합니다. 그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와 존은 둘 다 무덤으로 달려간다. 존이 더 빠른 모양이다. 존은 피터가 바로 그곳으로 쏙인하는 평범한 인간처럼 주저한다.

오, 세상에. 아, 그는 흐릿하게 표현했지만, 신이 그에게 준 이 선물들은 영과 그의 주인을 배신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가 배상한 것에 의해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오, 그는 대답했군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리더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리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재능입니다. 글썄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는 위대한 선을 위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습니다.

같은 자질들은 영에 의해 인도되고, 영에 의해 길들여지고, 영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발 씻기 에피소드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매일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르쳐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깨끗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목욕을 했고,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먼지, 팔레스타인의 길은 먼지투성이였고, 샌들은 발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합당하고 외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과부들의 명단, 교회의 지원. 그녀는 성도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발을 씻게 한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목욕이 아니라,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을 필요가 없고, 발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끗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누가 그를 배신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쳤다고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또한 이 동일한 행동에서 그들에게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일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봉사 의 예입니다. 내가, 당신의 선생님이자 주님이 당신의 발을 씻었다면, 당신도 서로에게 똑같이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13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34, 35,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즉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영광 돌리기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의 문체적 특징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어린이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잠시 머물러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곧 갈 수 없느니라. 새 계명이니라.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 예수님의 유명한 사랑 계명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강조점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갖는 사랑의 척도는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믿는 자들의 상호 사랑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증거의 일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서로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놉틱스의 강조점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확실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있습니다.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열매는 전도나 전도의 결과로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적용일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기도, 순종, 기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8,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됨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포도나무의 참된 가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비로운 일입니다. 듣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나쁜 징조이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5:9,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어떤 모습일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것은 요한 1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진실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당연히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자면, 모두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입니다. 요한 1서는 그분 안에 머물고 계속 거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한다고 말하지만, 포도원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 계명입니다, 12절, 기쁨에 대한 진술을 건너뛰니다, 완전한 기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기준이 큰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신자의 표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세상이 알게 될 한 가지 방식이며, 초기 이교도 중 한 명이 기독교인에 대해 말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우리는 16절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내가 비유와 수수께끼와 신비로운 말로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관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5. 그 날에, 당신은 스스로 아버지께 물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를 위하여, 16장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이니라.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농담은 용서해라, 의도치 않은 농담.

훌륭해요. 그들은 그를 사랑했어요. 항상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알아두면 좋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 항상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이제 와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당신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흥분합니다. 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거룩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17장에서 위대한 제사장 기도문에는 20절에서 보여지듯이 사랑의 음표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여, 그들의 말과 증거를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것은 영광에 대한 현재 감각과 이미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수년간 생각한 후 제가 내린 논제는 마지막 것들의 모든 주요 특징은 이미이고 아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미래에 더 큰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이 당신이 나를 보내셨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소서.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척도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너무 높습니다. 누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에 도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한 복음이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강이고,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코끼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전 경찰이 7장에서 예수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을 때 발견했듯이, 그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독특하게 신의 신성한 인간적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는 신의 말씀, 즉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안에 아들이 서로 거하심이 있고, 23절,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세상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구원의 측면을 더 많이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구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